전력거래소-전남대 '맞손'… 에너지 인재 키운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남대학교와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특성화융합연구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거래소와 전남대학교가 전남광주지역 에너지 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남대학교와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브랜드 단과대학·특성화융합연구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대학교 브랜드 단과대학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분야 특성화융합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브랜드 단과대학·특성화융합연구원 사업' 업무협약

교육·공동연구·기술 협력… 차세대 산업 기반 강화

브랜드 단과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가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일체형 교육과정 구축이 핵심이다.

전력거래소는 국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유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전남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결합해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미래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특히 전력거래소의 현장 실무 전문가와 전남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학생들이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과 전력계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이번 협약이 지역 대학의 교육 기능을 넘어 전남광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학협력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력거래소와 전남대는 앞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공동연구 과제를 마련하고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산학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남광주지역의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전력거래소가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적 에너지 인재 육성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어린이 '수돗물 교육' 호응

수질연구소, 체험캠프 운영…물의 소중함·수돗물 안전성 배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물의 소중함과 안전성을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도교실'에 이어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를 12~13일 이틀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방문 교육과 수질연구소·정수장 현장견학을 연계한 참여형 환경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수돗물 정화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물 절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에 참가한 17명의 초등학생들은 수질연구소에서 간이 정수처리 실험을 진행하고, 현미경을 통해 상수원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을 직접 관찰했다. 또 첨단 분석장비를 둘러보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질관리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덕남정수장을 방문해 응집·침전·여과·소독 등 수돗물이 정화되는 주요 공정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져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모든 과정을 확인하며 상수도 시설의 역할과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험과 현장 체험 위주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수질연구소는 앞서 지난 5월 광주 율곡초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도교실'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이론 교육과 함께 탁한 물이 깨끗해지는 정화 실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질연구소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난희 수질연구소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실험하고 정수장을 견학하며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전 과정을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지속 확대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인사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 방요순 △AI앙트십대학장 안태기 △국제협력처장 김은실

목포 박영동·박상배 부자 기업인, 사랑나눔 실천 '훈훈'

송하전업사·신협종합상사 대표 목포복지재단에 1500만원 기탁

목포시는 지난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송하전업사(대표 박영동)와 신협종합상사(대표 박상배)가 이웃사랑 성금 1500만 원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송하전업사(대표 박영동)와 신협종합상사(대표 박상배)가 이웃사랑 성금 1500만원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두 기업 대표가 부자(父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송하전업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박영동 대표와 신협종합상사를 이끄는 아들 박성배 대표는 각자의 사업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

이들 부자는 민선9기 출범을 축하하고 시정방침인 '체감하는 생활복지'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웃사랑 성금 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영동 대표님과 박상배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부자(父子)가 함께 이어가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연구원, 주민 생활안전·행정통합 시민연구 우수과제 선정

시민·신진연구자 7개 연구과제 평가

광주연구원은 '2026년 광주 시민 참여형 작은연구' 지원사업 최종 평가를 진행해 시민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 분야에서 각각 우수과제 1건씩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연구자 분야에서는 '안전한 마을 환경을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 연구-학운동 주민의 생활안전 인식과 개선방안: 침수 및 방범환경과 안심 귀갓길을 중심으로'가 우수과제로 뽑혔다.

이 연구는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학운동 지역의 침수·범죄 취약지역과 야간 보행환경 등 생활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마을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 배수시설과 방범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연구원은 '2026년 광주 시민 참여형 작은연구' 지원사업 최종 평가를 진행해 시민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 분야에서 각각 우수과제 1건씩을 선정했다.

신진 연구자 분야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비한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분석과 제도적 과제-조례안 처리과정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연구진은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 처리 과정을 분석해 행정통합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광주 시민 참여형 작은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진 연구자에게 지역 현안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연구원은 지난 7일 내·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최종 보고서를 심사해 분야별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우수과제 연구 책임자는 앞으로 약 2년간 '시민 연구원'으로 위촉돼 광주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정책 논의와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전화 062-370-7030 | 팩스 062-385-5400 | 이메일 gndn2018@naver.com

운세 (음력 7월2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쥐
48년생 예정돼왔던 문서 들어올 것
60년생 하나 들어오고 둘 나가는 날
72년생 그 근심은 약간 해결되겠다
84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되리라
96년생 이상형 연인 들어와 가슴 설레는 날

소
49년생 모든 일에 정도를 지키면 편안하다
61년생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 긴 안목 필요
73년생 중도에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5년생 확신하고 있다면 원칙을 고수하라
97년생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낙도 없다

호랑이
50년생 집안 문제 해결에 단합하라
62년생 맑은 정신에서 행해야만 실수가 없다
74년생 근본 원인부터 찾아내야 겠다
86년생 과도한 진급 욕심은 금물
98년생 계속 도전해 가는 정신력을 만들 때

토끼
51년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라
63년생 때를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라
75년생 유혹에 약한 마음 강하게 하라
87년생 하고 있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99년생 흐트러진다면 후회가 클 수밖에 없다

용
52년생 인과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는다
64년생 일이 해결되지 않고 시일이 걸린다
76년생 사소한 것도 꼼꼼히 챙겨라
88년생 뜻밖의 문서 생기거나 귀인 만난다

뱀
53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65년생 아랫사람과의 이익 관계는 양보해라
77년생 친구의 말은 무시해도 좋으리라
89년생 지금은 모아야 할 때

말
54년생 지인에게 부탁한 일은 기대하지 마라
66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가늠해 볼 일
78년생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탄탄대로인 날
90년생 천방지축 행동하니 주위 눈총 받는 날

양
55년생 뜻하지 않던 금전 지출 될 것이라
67년생 인심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79년생 효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91년생 청실 홍실 매어 놓은 연분 있는 날

원숭이
56년생 최상의 컨디션에 모든게 술술 풀릴 것
68년생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80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92년생 목표에 전망 밝다

닭
57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라
69년생 친한 사이 금전 거래는 가급적 삼가라
81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93년생 한 가지 학업에 집중하라

개
58년생 뒤탈이 있으니 유혹에 끌리지 마라
70년생 직감과 예감 빨라 일 성취 높은 날
82년생 가정에 경사 있으니 형제간 우애 가득
94년생 미래의 성공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돼지
59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
71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된다
83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된다
95년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인연 맺자

풍수·역리문화원 | 광주 동구 충장로 2가 1-1 | blog.naver.com/soed9999 | 010-3629-3566